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개소 2주년 기념

**대전지역
시민사회 협력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일 시 :
2017년 11월 15일(수) 10시 30분

장 소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모여서 100

프/ 로/ 그/ 램/

<등록> _ 10:00 ~ 10:30

<발제> _ 10:35 ~ 11:15

- 발제1 : 곽현근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전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
- 발제2 : 김화진 / 대전마을활동가 포럼 서구마을넷 대표
「마을에서의 협력 사례」

<지정토론> _ 11:35 ~ 12:15

- 토론 1. 김선공 / 대전사랑운동센터 사무처장
- 토론 2. 김영진 / 혁신청 사무국장
- 토론 3. 문창기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 4. 박이경수 / 여성인권티움 사무국장
- 토론 5. 박지현 /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정책분과장
- 토론 6. 유승민 / 사회적경제연구원협동조합 이사장
- 토론 7. 장용석 /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센터장
- 토론 8. 장정미 /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표

<마무리> _ 12:15 ~ 12:30

〈발제1〉

**대전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

곽 현 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전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

대전대 행정학과 곽현근

1

• ‘개념’의 역할은?

대를 잇는 어른들의 최악의 **장난**-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제가 7살 때쯤에 가솔(?)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친엄마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할아버지, 그리고 삼촌, 아빠는 저에게 자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 할아버지께서 다리 위를 지나가시는데
웬 거지가 아이를 잘 키워 달라며 할아버지께 드렸다고요.
그래서 아빠에게 아기를 드렸고 아빠는 그런 저를 거두어 키웠다고요.
이젠 너도 클만큼 컸으니 다리 밑에 있는 친엄마를 찾아가구요.

처음에는 장난이겠거니 했는데...맨날...볼 때마다 웃으면서 놀리시는데...
엄마라도 아니라고 부정해주시길 바랐는데...옆에서 빙글빙글 웃으실 뿐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고...
같은 이야기도 계속 듣다보니 정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엉엉...달을 보고 울다가 다음 날 아침 일찍 무작정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었는데...
뭐...어린 걸음이 멀리는 못 갔고 곧 엄마가 찾아서 데리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장난과 진짜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나무라시면서 말이지요.
암튼...지금도 그때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을 보면 당시 저는 얼마나 심각했던지요.

2

- 위 사례는 단순히 어른의 **장난**으로만 볼 수 있는가?
- 다음 '개념' 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
 - **정서적 아동학대** : 아동에게 언어적 · 비언어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부정적으로 대함으로써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정서에 손상을 주는 것
- 사실이 스스로 '정서적 아동학대' 입을 말해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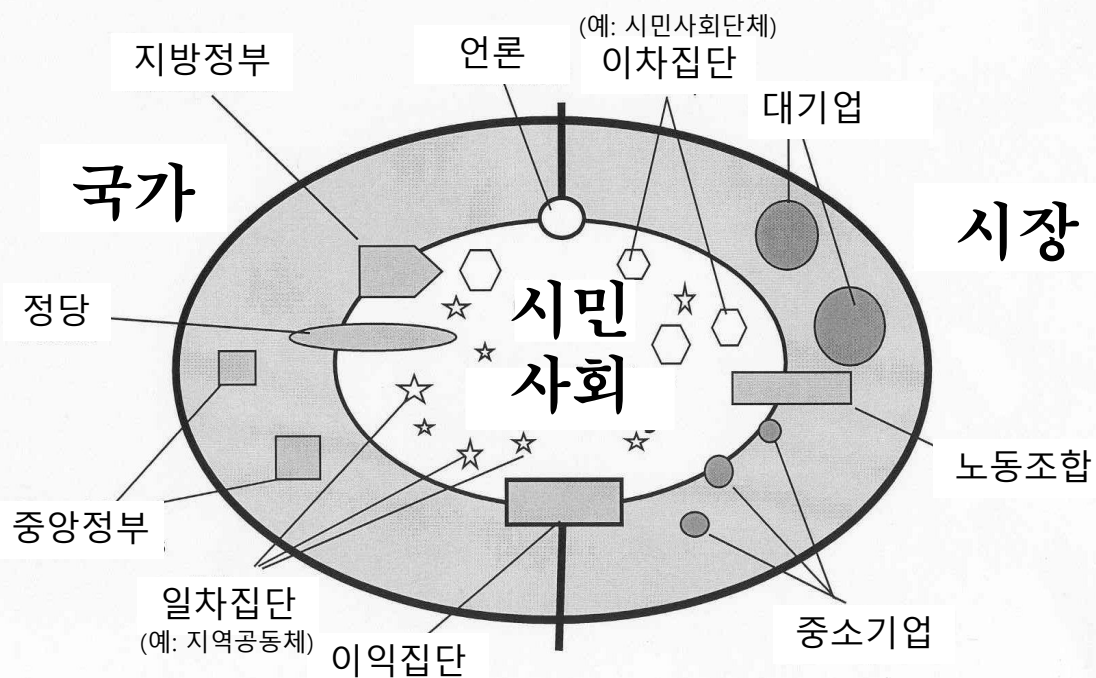
3



다음 의미를 가진 개념은?

'공적기관(국가)과
재생산을 위한 사적단위(기업과 가족)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며
자발적으로 조직된 중간매개집단'
(Schmitter, 1997: 24)

사회의 조직원리



왜 거버넌스가 어려운가?

시장 · 정부 · 시민사회 ·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특징

	시장	계층제(정부)	시민사회	거버넌스 네트워크
관계의 기초	계약과 사유재산권	고용관계	결사체적 참여	자원의 교환
교환의 매개체	가격	권위	신뢰와 호혜	신뢰
갈등해소 및 조정수단	홍정과 법원	규칙과 명령	합의	교섭 (diplomacy)
문화	경쟁	복종	수평적 연대	상호의존

자료: Rhodes(1999)의 모형에 시민사회를 추가함

시민사회의 규범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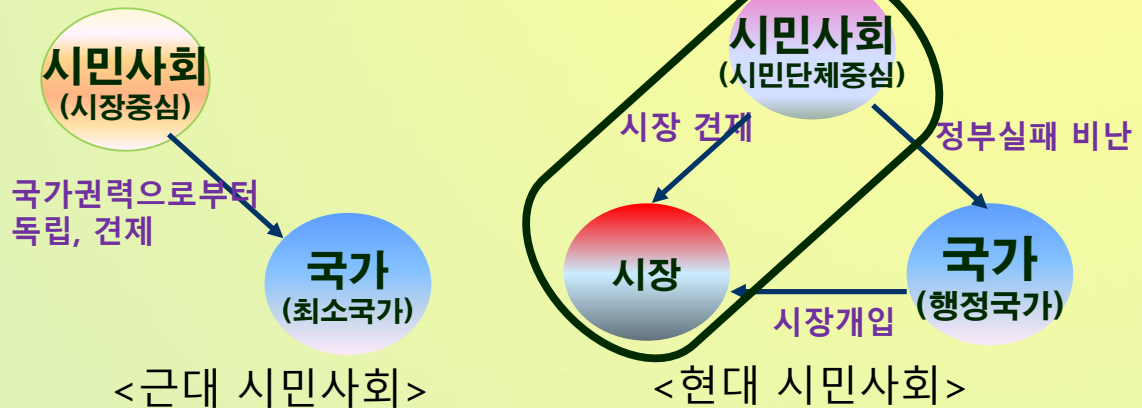
- 시민사회 개념의 사회적 구성
 - 해당 시대와 장소의 지배적 권력에 맞서는 사회적 자율성의 프로젝트로서의 성격을 지님
- 1980년대 이후 다양한 규범적 의미를 내포하게 됨
 - 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동유럽, 남미)
 - 시민들의 결사체 참여와 협력 강조
 - Civility: 사회적 관심, 관용, 상호존중, 책임감 등
 - 국가(state)에 대한 대안
 - 신자유주의 영향
 - 제3의 방식, Big Society

시민사회단체

◆ 개념

시민사회 구성원이 공공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NGO, VO, NPO)

◆ 시민단체 개념의 변화



시민사회단체 기능

◆ 주요 기능

-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자 역할
- 약자의 대변인(devil's advocate)
- 정책결정의 투입기능
- 갈등의 조정자
- 재화와 서비스 제공

◆ 한계

- 시민 없는 시민사회단체라는 비판
- 과잉대표의 위험성
- 시민단체 책무성(accountability)의 문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현황> (금홍섭, 2014)

전통적 시민운동을 기반으로 성장한 조직 / 종교 및 인물에 기반

- 대전YMCA, 대전YWCA, 대전홍사단

87년 민주화운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직 / 다양한 분야로 확산

- 대전경실련, 대전여민회, 대전환경운동연합
- 대전참여자치연대, 대전중남녹색연합 등

소비자 단체 / (사)대전소비자시민모임, 주부교실 등

풀뿌리주민운동 조직 / 풀뿌리사람들, 마을어린이도서관

- 민들레의료생협, 한발레츠 등

사회복지 서비스단체(외국인, 노숙자 등) / 쪽방상담소 등

국민운동 단체 /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대전지역 NGO 특징>

- 의존형에서 자급자족형으로 / 회원수 증가
- 대립형에서 거버넌스형으로
 - + 투쟁일변도에서 협치, 협력을 강조하는 운동
- 활동성 강조에서 전문성 강조로 / 전문가 집단 대거 참여
- 백화점식 운동에서 부문운동으로
 -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조되면서 분야별 시민운동
- 몇몇 분야중심에서 다분야 활동으로
 - + 도서관 만들기운동, 동물사랑 운동 등 다양한 분야
- 비정부 영역에서 정부영역에 이르기까지
 - + 시민운동 경력을 통한 지방정부 및 지방의원 진출 등

자료: 금홍섭(2014)

시민사회 초점의 확대: 시민사회단체 -> 지역공동체

◆ 지역공동체란?

- 지역(local)
 - ✓ 지금 살고 있는 특정 장소와 관련
 - ✓ 생생한 경험을 하는 규모(scale of lived experience)에 초점
- 공동체(communitiy)
 - ✓ 어원: common(공동의) + unity(통합)
 - ✓ 관심사, 직업, 종교, 인종, 공간 등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
-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 ✓ 일정한 지리적 공간 안에 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와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적 · 심리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 (Mattessich and Monsey, 1997)
 - ✓ 사회적 상호작용, 구성원 사이의 유대, 영토적 경계를 특징으로 함

◆ 현대사회 지역공동체의 성격

- 사회운동(social movement) 차원에서 접근
 - ✓ 단순한 기술적(記述的) 의미를 넘어서서 공동체의식, 공동의 관심사, 공유된 정체성을 가진 주민들이 '잘 연계된'(well-connected) 관계망을 형성해 함께 행동할 수 있다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
 - ✓ 지역공동체 운동: 주민들이 지역과 관련된 공동의 의제와 목표를 확인하고, 공동체적 역량을 형성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가는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
- '유한책임의 공동체'(community of limited liability) 강조
 - ✓ 농경시대와 같은 무한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 또는 제한된 수준의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참여 강조

◆ 지역공동체의 의의

- 세계화에 맞서는 따뜻한 지방화 전략
- '고약한'(wicked) 현대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
- 대의민주제 보완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 아래로부터의 지방분권 요구 확산을 위한 전략
- 자살과 같은 한국의 병리현상에 대한 처방

15

풀뿌리민주주의 (시민사회단체와 지역공동체 담론의 공통분모)

- 1935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사용
- 의회제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반대
- 시민운동, 주민운동 등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관점
- 평범한 시민들 또는 민초에 의해 동력을 가지는 정치과정을 강조

16

풀뿌리의 형상



자료: Conn(2011: 5)

17

사회적 자본이란?

✓ **자본** vs. **인적 자본** vs. **사회적 자본**

✓ 사회적 자본

▪ 사람들 사이의 **좋은 관계** → **생산적 자원**

✓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점




▪ **사회학적 관점** vs. **정치학적 관점**

정치학적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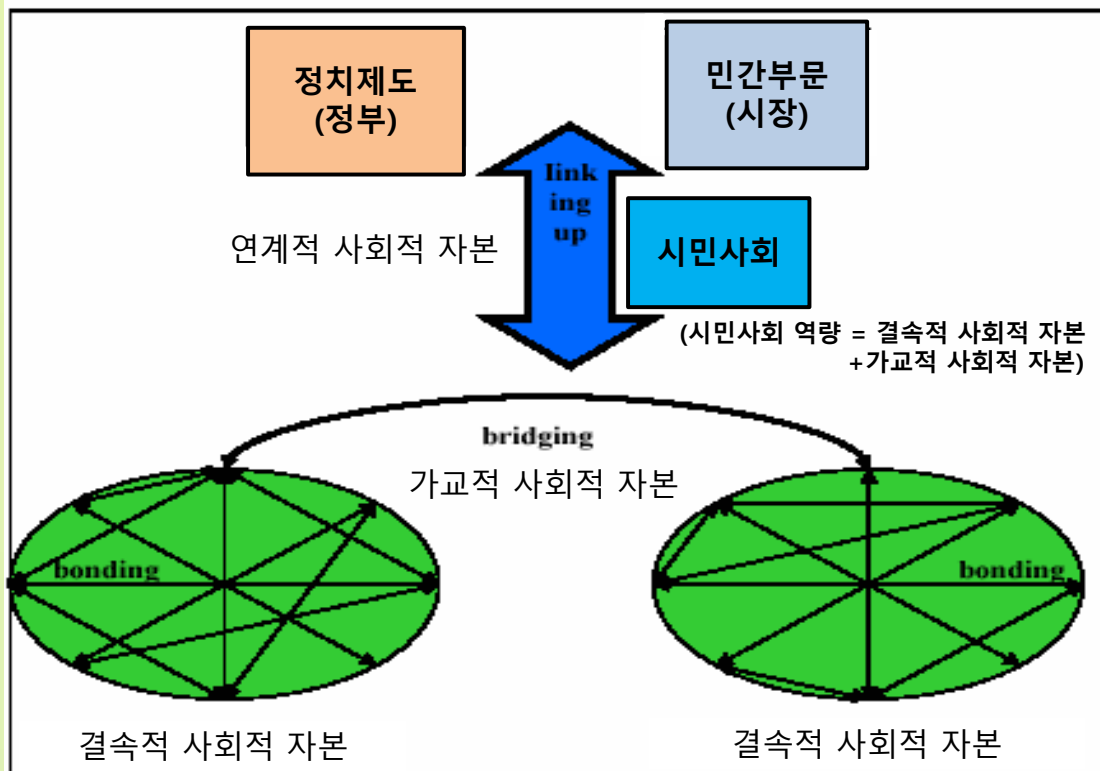
- R. Putnam(1993)의 「Making Democracy Work」
 - "조정된 행위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들" (Putnam, 1993)
- 사회적 자본을 개인이 아닌 사회조직(동네, 도시, 국가 등)의 특징으로 간주
- 해당 사회조직의 조정된 활동 또는 집합적 협력행위에 초점

- 사회적 자본은 시민(지역)사회 역량의 전제조건
 - ✓ 시민들 사이의 사회적 자본(신뢰와 호혜의 네트워크)은 갈등조정과 협력을 쉽게 만듦
 - ✓ 시민들의 갈등조정과 협력이 쉬워지면서 집합적 행위도 쉽게 형성됨
 - ✓ 집합적 행위를 통해 시민사회가 정부와 시장에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음

사회적 자본의 유형과 특징

유형	특징
<p>Bonding (Exclusive) Strong Social Bonds and Trust</p>  <p>결속적 사회적 자본(배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깝고 유사한 사람들 사이의 밀접하고 '강한' 결속과 유대 강조 - 비공식적 관계 영역의 고유한 가치에 초점 - 생존과 "그럭저럭 살아나가기" (getting by)에 도움
<p>Bridging (Inclusive) Cross-Organization Partnerships</p>  <p>가교적 사회적 자본(포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질적이지 않고 가깝지 않은 사람 또는 집단 사이의 존중과 상호성의 '약한' 유대 강조 - 서로 다른 성격의 결사체 또는 공동체 사이의 연합 또는 교류 강조 - 시민영역으로서 "앞서나가기" (getting ahead) 위한 도구적 가치에 초점
<p>Linking (Inclusive) Cross-Boundary Alliances with External Resource Networks</p>  <p>연계적 사회적 자본(포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권력 또는 권한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조직과의 연계 강조 - 가교적 사회적 자본의 일종 - 사회구성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제도 대표들에 대한 경의와 신뢰의 관계망 초점

사회적 자본 유형과 거버넌스



자료: Gomulia(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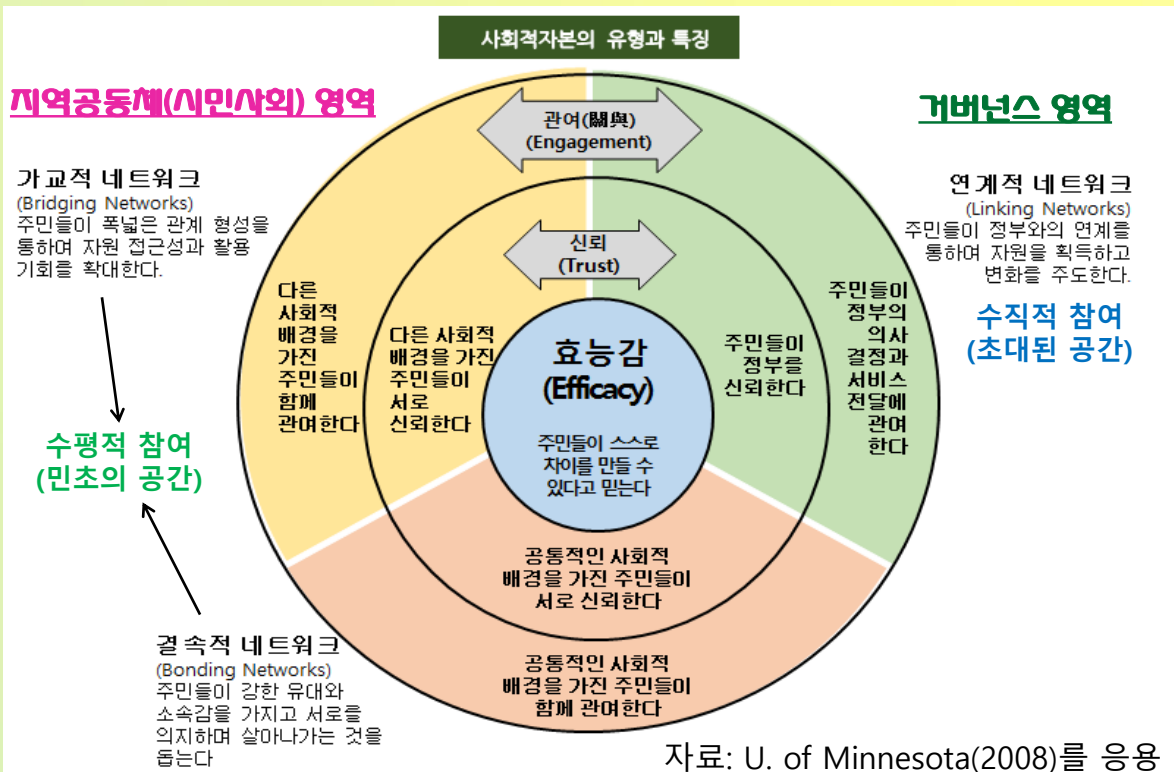
사회적 자본과 지역공동체

✓ 지역공동체: 일정한 지리적 공간 안에 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와

사람들에 대해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

✓ 사회적·심리적 유대 =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 신뢰, 호혜의식** = 사회적 자본

지역공동체를 통해 본 사회적 자본 유형과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유형과 지역공동체 변화

		가교적 차원	
		낮음	높음
결속적 차원	높음	<p style="text-align: center;"><u>내부와 외부의 강한 경계와 내부지향적 파벌주의</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에서 주도하는 변화에 공동체가 저항하거나 내분으로 인해 공동체변화 노력을 무력화함 - 종종 내부 조직들 사이의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함 	<p style="text-align: center;"><u>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사회인프라</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스스로가 정의한 목적에 따라 외부자원들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지역 주도적 변화
	낮음	<p style="text-align: center;"><u>무관심 / 극단적 개인주의</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자들은 재정자본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함 - 저소득층은 거의 해결방안이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u>연고주의 / 하향식 의사결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인사들의 목적에 의해 추진되는 지역공동체 변화 - 지역 또는 지역 밖의 권력엘리트에 의해 변화가 지배될 가능성이 높음

자료: Flora et al.(2004: 64)

25

시민사회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

- 시민사회의 식민화(colonizing civil society), 시민사회의 제조화(manufacturing civil society) 등의 명칭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다른 부문, 특히 국가의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
- 시민사회의 독립성이 침해 받는 방식
 - 조합화(incorporatism)
 - 동질유형화(isomorphism)
 - 무력화(incapacity)

26

시민사회단체의 내부 지향성과 민주적 역할의 감소

- 민주주의를 위한 더 많은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민사회단체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제 민주주의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음
- 실제 많은 시민단체들의 경우 어떻게 시민들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 또는 시민역량에 공헌할 것인지가 필수적인 조직적 목적이 되지 않음
 - 지배적 멘탈리티: 내부지향성, 기획 및 전문성(professionalism)
 - 조직의 1차적 관심사의 보호, 조직의 안정성이 압도적인 사명
 - 부족한 자원의 환경 속에서 공동체에서의 시민역량 형성과 같은 2차적 목적들을 추구하기 전에 조직의 생존과 조직의 핵심 목표 달성에 헌신
 - 많은 시민사회 조직들이 자금지원자들(funders)의 의제와 관련하여 자신들을 정의하고, 리더들은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들을 기피
 - 시민참여는 갈등을 부각시키고, 시민사회단체 의제의 집행을 복잡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노력으로 간주됨

27

시민사회 활동공간의 유형화

(민초의 공간 vs. 초대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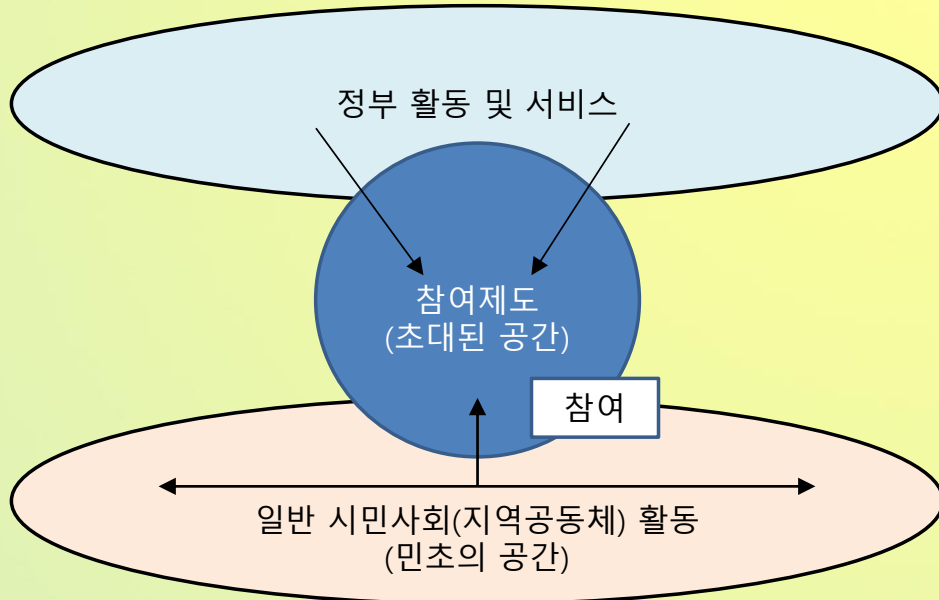
① 민초의 공간(popular space)

- 시민들만의 활동 무대
- 수평적 참여의 공간
- 정부와는 독립적 활동
- 주민의 연대형성을 통한 정부정책에의 항의, 자급자족적 서비스 생산 가능

② 초대된 공간(invited space)

- 정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참여제도
- 열린 공간을 마련하려는 정부정책의 변화 반영
- 수직적 참여의 공간
- 초대된 공간의 참여자 구성과 권한배분 및 의제는 정부에 의해 정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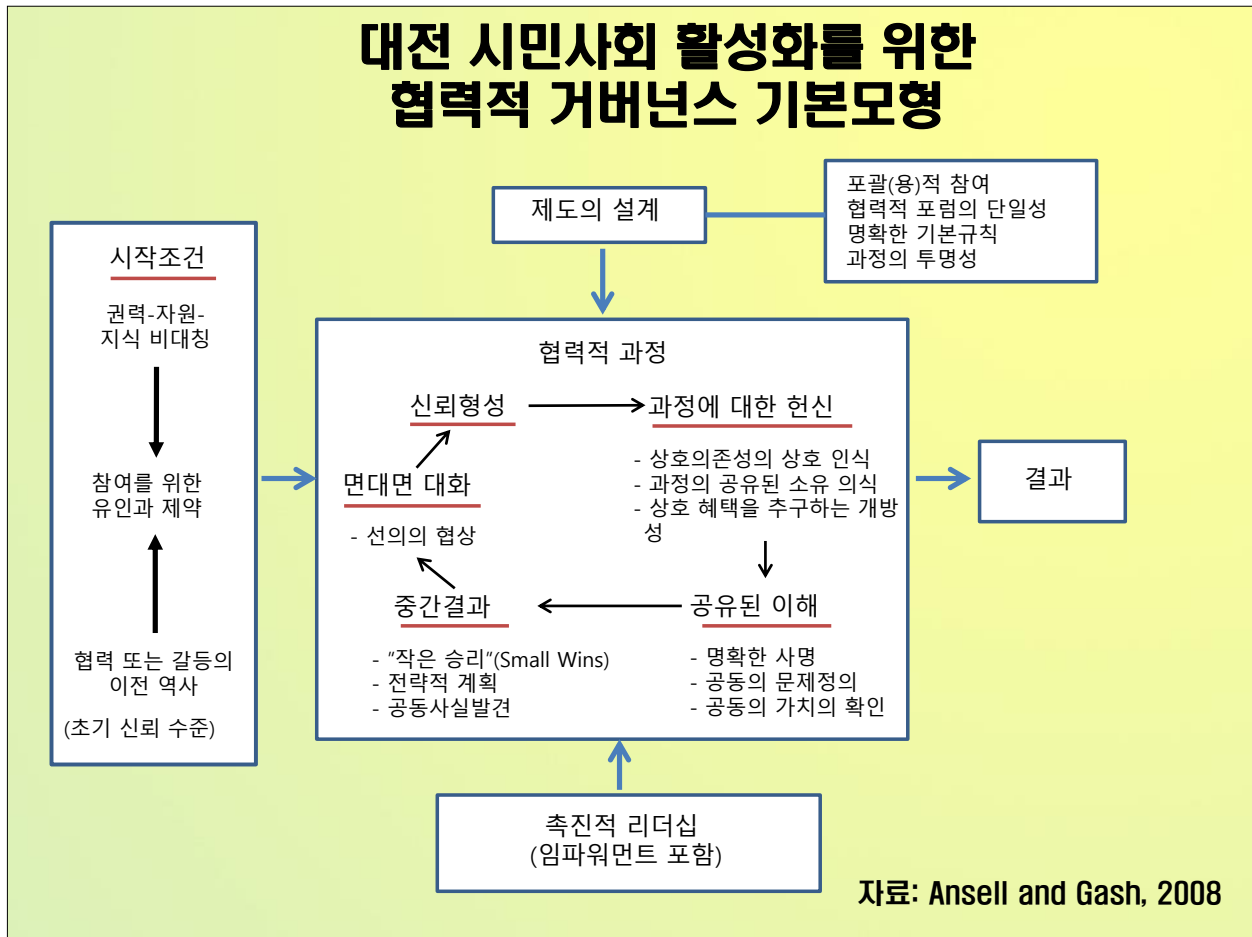
지역공동체(시민사회)를 위한 활동공간 (민초의 공간 vs. 초대된 공간)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민초의 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합노력
 -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도들(마을만들기사업, 주민자치위원회, 사회적 경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세, 중간지원조직 등)의 연계 노력
- 이슈 중심의 시민사회단체와 지역공동체 조직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가교적 연대 노력
 - 예: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과 연계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확대
- 민주적 관계 형성을 위한 시민사회 자체의 제도 실험 및 역량 강화
 - 시민사회 활동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위한 규칙 설계와 적용을 통한 성공사례 발굴과 확산
 - 다양한 맥락의 시민사회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실험

대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기본모형



시민사회를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

목적, 민주적 운영이란 무엇인가

- 절차적 민주주의 vs. 실질적 민주주의의 차이
- 정해진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보장된 셈?
- NO. 실질적인 소통 과정에서 배제가 없었고 최대한의 의사교환이 있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진정한 민주적인 소통이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 의사 결정의 진행 과정이 폭력적이지 않은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목적, 민주적 운영이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 “논의의 효율성보다는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며,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 독재 정치에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나머지 구성원”, 의사결정권의 주류가 아닌 나머지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적 기본 질서의 시작
- 핵심은 “소외되지 않음”, “충분히 고려함”에 있다.

자료: 변규홍(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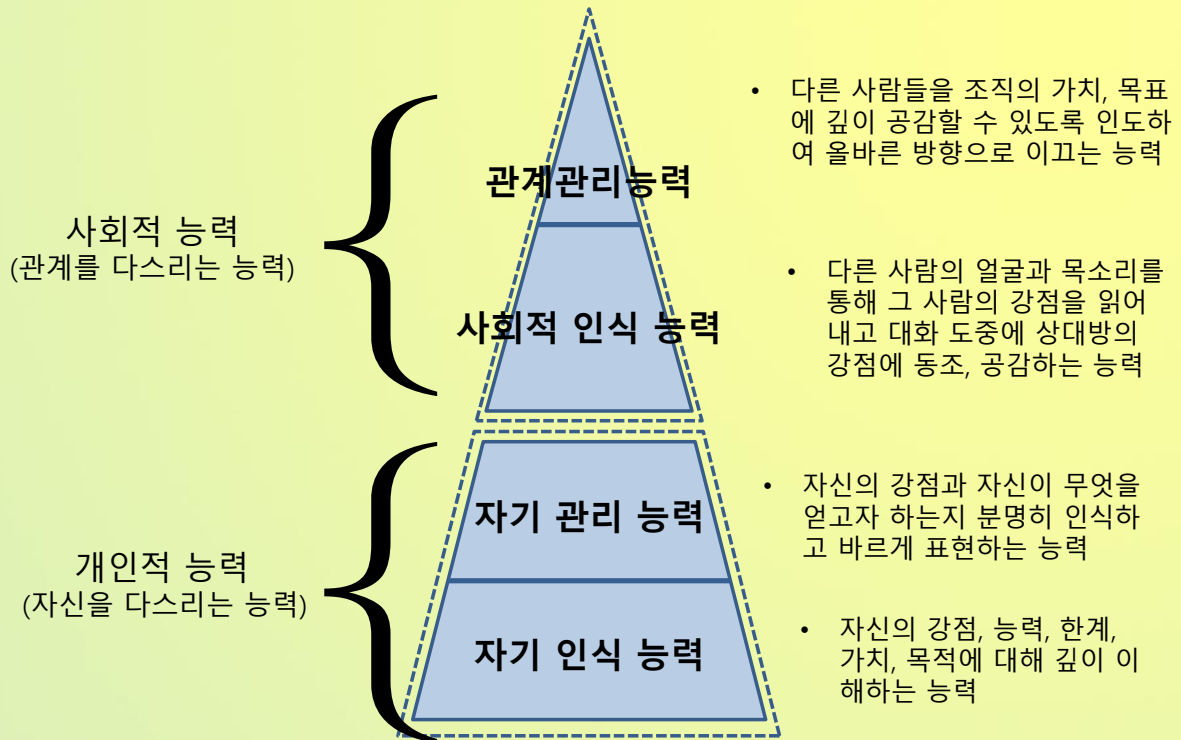
- 소통은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제를 필요로 함
 - 서로 소통하기 전에 이미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권력 삼아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 어떤 판단이나 결과에 대해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은가?
 - 다른 사람에 대해 정당한 비판과 평가를 하고 있는가?
 - 언제 어디서나 나의 의견을 정당하게 이야기 하는가?
 -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듣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대화와 소통의 목적



Graphic created by Sandy Heierbacher, NCDD (August 2009). Its content is a slightly adapted version of the "Goals of Deliberation" figure in *Beginning with the End in Mind: A Call for Goal-Driven Deliberative Practice* (Summer 2009, Public Agenda's Center for Advances in Public Engagement), by Martin Carcasson of Colorado State University's Center for Public Deliberation, available at www.publicagenda.org/cape.

신뢰형성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



협력의 4가지 장애요인(Hansen, 2009)

- **남의 것 배척 장벽(The not-invented-here barrier) -> NIH 신드롬**
 - ✓ 사람들은 외부로부터의 투입을 얻기 위해 조직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린다.
- **사재기 장벽(The hoarding barrier)**
 - ✓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것을 꺼린다.
- **찾기 장벽(The search barrier)**
 - ✓ 필요한 정보와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없다.
- **이전(移轉) 장벽(The transfer barrier)**
 - ✓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쉽게 지식이 옮겨갈 수 없다.

왜 '남의 것의 배척'이 발생하는가?

격리 문화
주로 집단 내부만의 의사소통

지위 차이
지위라인을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음

자기의존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만 함

두려움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음

남의 것 배척 장벽

왜 '사람들의 사재기'가 발생하는가?

경쟁
동료 또는 다른 부서와의 경쟁

편협한 유인들
자기 자신의 목적에 대한 보상

지나치게 바쁨
다른 사람을 도와줄 시간이 없음

두려움
지식을 공유했을 때 권력의 상실

사재기 장벽

왜 '찾기'가 어려운가?

조직 규모
대규모 조직은 찾기 문제에 직면

물리적 거리
공간상 거리가 찾기를 어렵게 만들

정보 과부하
너무 많은 정보가 찾기를 어렵게 만들

관계망(네트워크)의 빈곤
연계고리의 부족이 찾기를 방해

찾기 문제

왜 '이전문제'가 발생하는가?

묵시적 지식
전달하기 어려운 지식

공통의 프레임의 부재
함께 일하는 방식을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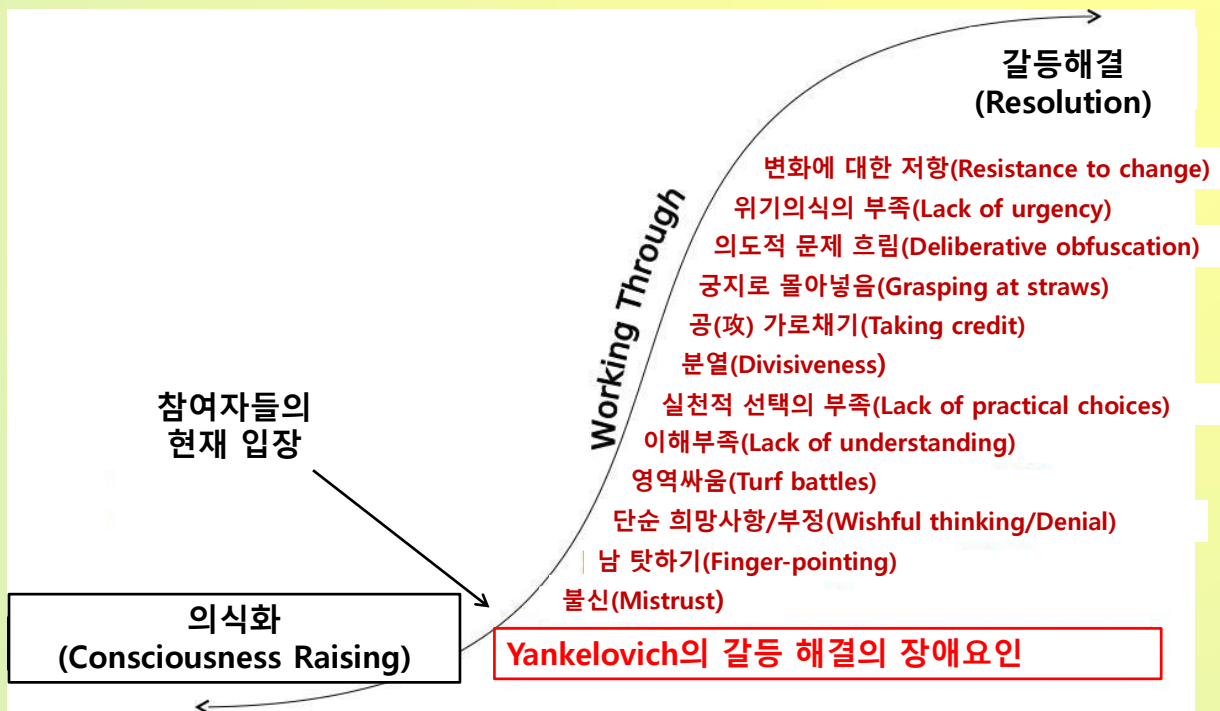
약한 유대
이전을 쉽게 만드는 관계의 부재

이전(移轉) 문제

공공부문 협업행정 장애요인

장애요인	이유
자기 세력권 지키기 (Turf)	협업행정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은 자신의 부서 또는 부문의 책임범위를 유지하거나 확장하기를 바람
예산의 보호	협업행정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은 자신의 부서 또는 조직단위 재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보유하려고 노력함
관료정치 (Bureaucratic politics)	서로 다른 부서와 조직단위들은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봄(말하자면 무엇을 보느냐는 자신이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에 달려있음)
무지 (Ignorance)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쟁점에 다른 부서나 조직단위가 관심(이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음
협업행정 지원체계미흡	협업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유인을 재설계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적 행위를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종합적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구성체계 (architecture)의 구축 노력 없이 공동장소에 부서들을 모아놓는 것과 같은 물리적 측면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음
프로그램에 대한 초점 (programmatic focus)	해당부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초점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재정적·정치적 책무성 (accountabilities)이 막대한 수직적·수평적 긴장과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협업행정 방해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구조가 조직간 협력의 촉진과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합의를 도출하는 현장행정의 중개역할을 가로막고, 의사결정 승인과정에서 서로 다른 부서들의 계층을 거치게 되면서 효과적인 반응이 지연되고 현장 공무원들의 무관심한 태도를 생성하게 됨

갈등조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체크포인트



자료: Blog for Building Dialogue(2015)

〈발제2〉

마을에서의 협력 사례

김 화 진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서구마을넷 대표

마을에서 꿈꾸다!!!



우리는 배움과 열정, 나눔으로
행복한 마을 문화를 만든다

수밋들어올벗 창립식



배우고.

- (난타, 천연화장품, 다포, 빗꽃 부채와 목걸이, 어올벗 비전 만들기 교육, 빈티지페인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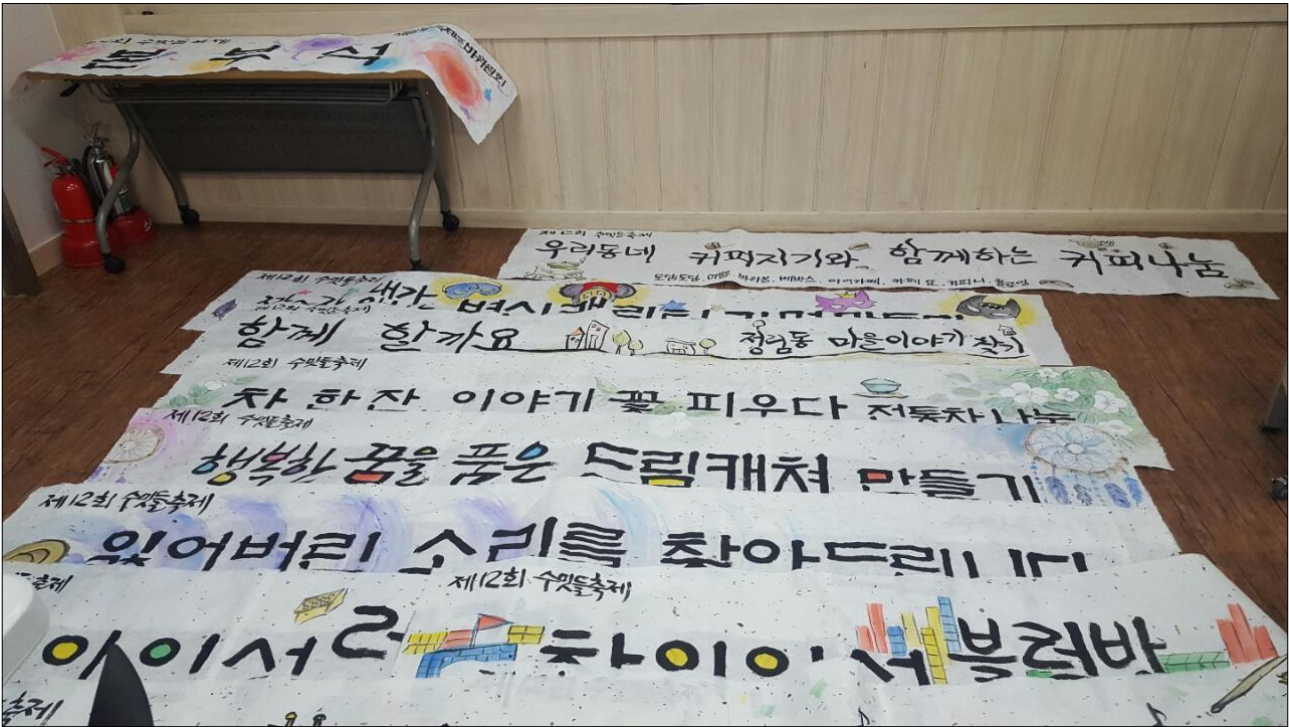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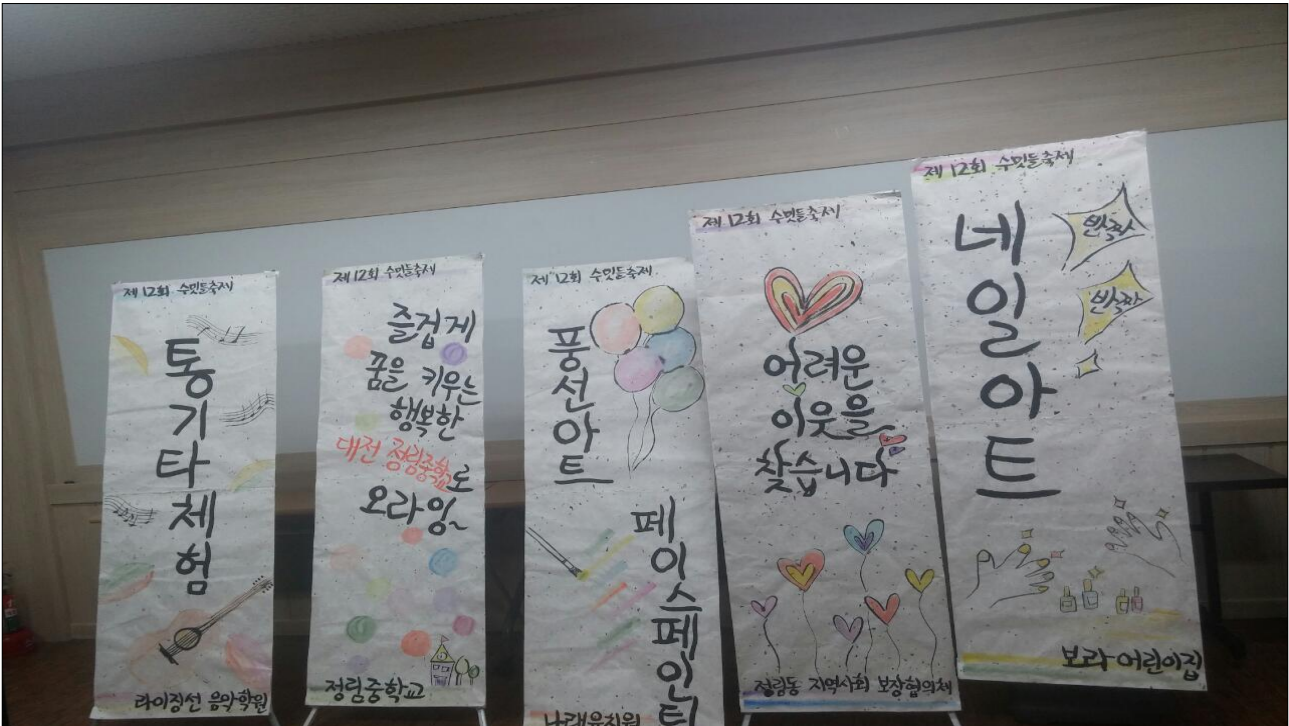


보고



나누고





마을의제 찾기





설문지

4. 체험비

1) 수민속축제 체험부스 중 유료체험부스 운영시 체험비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 체험비는 정림동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무료 □ 1,000원 □ 2,000원 □ 3,000원 □ 4,000원 이상

5. 향후 활동

1) 이번 수민속축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2) 향후 수민속축제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포스터	지인을 통해	SNS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기타	미응답
결과 (107명 응답)	17 (15.9%)	47 (43.9%)	1 (0.9%)	28 (26.2%)	14 (13.1%)	6

다) 향후 주민들에 의해 수민속축제를 기획·운영 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나요?

	네	아니요	잘 모르겠다	미응답
결과 (204명 응답)	118 (57.8%)	23 (11.3%)	63 (30.9%)	3

3) 마을공동체 활동

가) 참여하고 싶은 마을공동체 활동 분야는 무엇인가요?(중복체크가능)

	생태·환경	교육	자원봉사	먹거리	육아	안전	문화예술활동	기타
결과	15 (7.3%)	36 (17.5%)	56 (27.2%)	54 (26.2%)	38 (18.4%)	31 (15%)	68 (33%)	8 (3.9%)

4) 체험비

가) 수민속축제 체험부스 중 유료체험부스 운영시 체험비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 체험비는 정림동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무료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이상	미응답
결과	40 (19.6%)	65 (31.9%)	53 (26%)	27 (13.2%)	19 (9.3%)	3

출처: 마을교육연구소

생각모으기



소통



관계 속 성장

-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수밋들축제
- 주민센터: 벚꽃 축제
- 산성교회(대전월드휴먼브릿지): 마을음악회
- 정림초등학교, 수미초등학교: 홍보, 공간
- 후생학원: 캠프와 텃밭 가꾸기
- 정림동주민협의체: 둘레길과 무궁화 공원
- 더 미술학원: 벽화 그리기
- 보라어린이집: 봉사

함께 만드는 우리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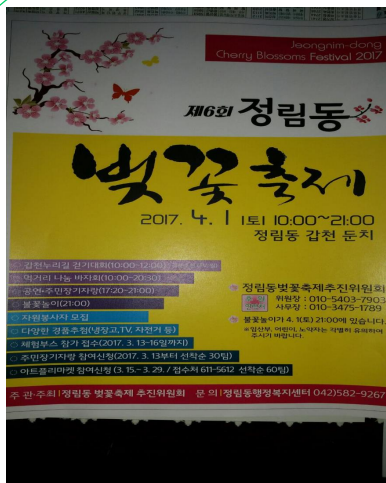
마을 문화



마을의 문화 공간



벚꽃축제



수밋들축제



100인의 수밋들축제 준비위원 첫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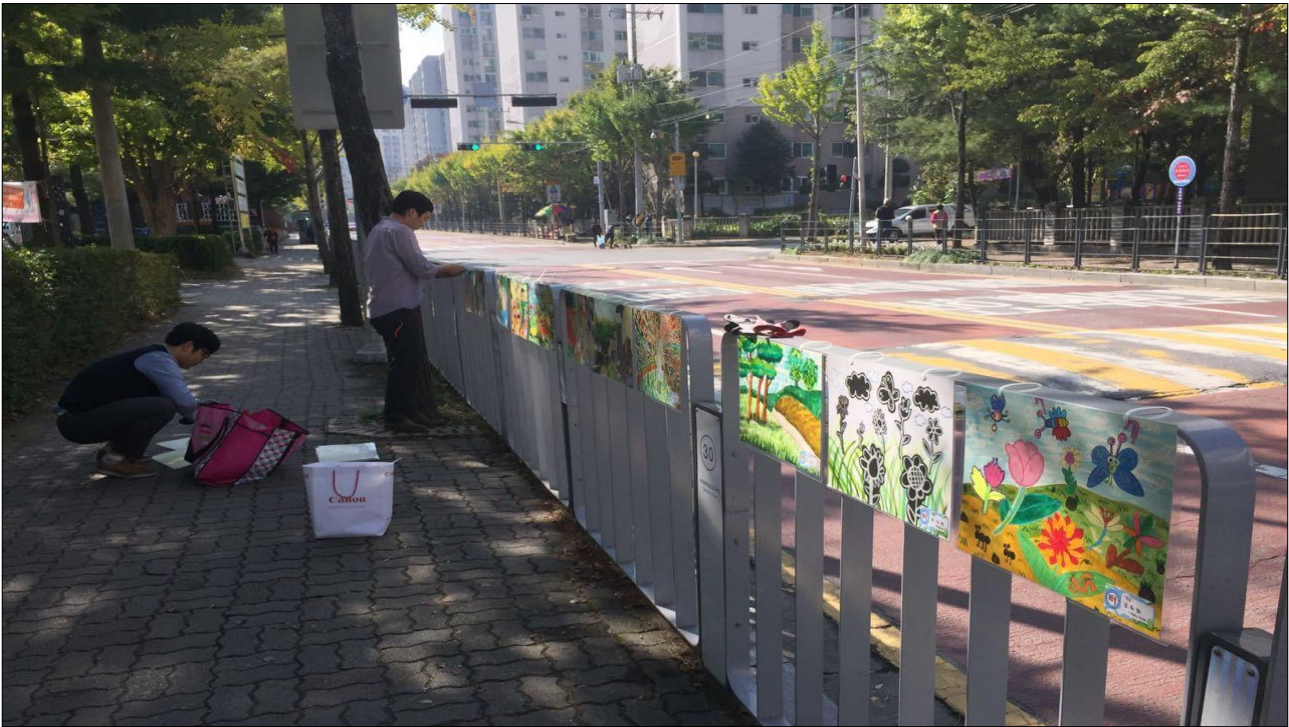


주민 준비위원회 일정 안내

앞으로의 일정과 논의할 내용들

- 1 2차모임 8/31(목) 저녁 7시
- 2 3차모임 9/7(목) 오후 4시
- 3 4차모임 9/14(목) 오후 4시
- 4 5차모임 10/12(목) 저녁 7시











더불어 행복한 정립동 주민과 함께하는
제 12회 수밋들축제
 2017. 10. 14. (토)

과

팝콘 제공
기부라면
 ★모인 기금은
 『마을안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시간 19:00~21:00
장소 수밋들어린이공원

함께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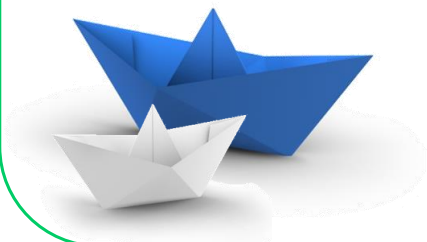
상영영화
‘모아나’

정립동






감사합니다



〈토론〉

- 김선공** 대전사랑운동센터 사무처장
김영진 혁신청 사무국장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이경수 여성인권티움 사무국장
박지현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정책분과장
유승민 사회적경제연구원협동조합 이사장
장용석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센터장
장정미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표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consisting of 20 evenly spaced lines.

MEMO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consisting of 20 evenly spaced lines.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consisting of 20 evenly spaced lines.

MEMO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a memo.